

## 김문수 위원장, “현대사의 주역 한국노총과 함께 사회적 대화 추진”

### 한국노총 신임집행부, 위원회 내방 간담

김문수 위원장은 2월 21일(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내방한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등 신임 집행부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한국노총 28대 신임 집행부와와의 상견례 자리로 양기관의 주요 간부들이 참석해 산적한 노동현안과 사회적 대화 관련 의견을 교환하고자 마련되었다.

김문수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한국노총은 현대사의 주역으로 국정운영의 소중한 동반자이자,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가는 핵심 주체”라고 강조하고, “한국노총이 노동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적극 나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따뜻한 환대에 감사의 인사말을 전한 뒤 “사회적 대화의 지속은 정부 태도에 달렸다”며,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의 핵심 주체인 만큼 당당하게 대화를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노사정 간 신뢰 회복과 사회적 대화 재개를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동명 위원장은 “노사정 간 신뢰 회복이 대화 복원의 열쇠”라고 말했고, 김문수 위원장은 “한국노총 생각에 공감하며, 한국노총과 더 많이 소통하고 대화할 기회를 만들겠다”고 화답했다. **ESLC**



#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노동운동에 격려 보내”

## 김문수 위원장,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출범식에서 축사

‘MZ세대’가 주축인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이하 협의회)’ 출범식(2.21.)에 참석한 김문수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협의회의 출범과 앞날에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김문수 위원장은 “협의회에 국민이 주목하는 이유는 ‘법치와 원칙’을 강조하기 때문”이라며, “정부와 기업은 ‘투쟁의 함성’보다 ‘올바른 소리’에 귀를 더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더 낮은’ 자세로 ‘더 가까이’, ‘더 많은’ 분들과 소통하겠다”며, 협의회 출범을 축하했다.

협의회는 현재 ▲서울교통공사, ▲LG전자, ▲LG에너지솔루션, ▲LG일렉트릭, ▲금호타이어, ▲부산관광공사, ▲코



레일네트웍스, ▲한국가스공사 등 8개사 노동조합 조합원 6000여명이 소속돼있다.

협의회는 향후 ‘교섭대표 노조의 권한 독점’, ‘생산직과 사무직 간 불평등 및 불공정 대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 등에 대한 문제해결에 집중해 나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eslc**

# 지역의 산업 위기, 지역노사정 대화로 극복을

## 위원장, 전남지역 노동계와 광주글로벌모터스 현장 방문



김문수 위원장은 3월 2일(목) 전남 광주를 방문, 한국노총 전남지역본부와 광주글로벌모터스를 잇따라 방문, 간담회를 개최하고 관계자들과 광주전남지역의 산업위기와 노동계의 어려움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 전남지역본부와의 간담에서 “지역 산업의 위기는 그 지역 노사정이 해법을 가장 잘 알고 있다”며, “전남지역 노사정이 지역 사회적 대화를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노사상생 모델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광주 글로벌모터스 공장으로 자리를 옮겨, 생산라인을 둘러본 뒤 노사관계자들과의 간담에서 “노사상생을 자양분삼아 뿌린 내린 기업은 위기 극복은 물론, 성장발전의 기회도 더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문수 위원장은 노동개혁 관련, 지역 노사의 생생한 의견청취를 위해 지난 1월부터 지역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eslc**